

김장비용,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보다 30% 싸다

<22만1410원>

<30만337원>

광주 YWCA 조사... 쪽파·갯갈 등 가격 2배 이상 차이

울거울 광주지역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간 김장 재료 값이 평균 30%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YWCA 사회문제 및 소비자상담실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액젓 등 김장재료 13개 품목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이틀간 광주 지역 주요 전통시장 5곳과 대형할인매장 11곳, 백화점 3곳의 가격비교를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YWCA 조사를 토대로 계산하면 2011년 4인 가족 기준 김장비용의 평균가는 26만873원으로 예측되었으며 재래시장의 경우 22만1410원, 대형할인점은 30만337원이 들 것으로 보여 재래시장이 7만8927원(26.3%)가량 저렴할 것으로 조사됐다.

김장 재료비는 판매업체에 따라 품목별로 최대 8배 차이가 났으며 생강, 쪽파, 소금, 새우젓갈 등은 재래시장보다 대형할인점이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쪽파의 경우 재래시장은 1kg당 1000원에서 2000원 선인 반면 대형마트는 1500원에서 8000원에 판매되기도 하는 등 가격 편차가 가장 심했다.

새우젓갈도 재래시장에서는 1kg당 6천 원에서 1만5000원 선에 가격대가 형성됐으나 대형마트에서 사려면 1만2800원에서 최고 3만 1600원을 지불해야 해 2배 이상 가격 차가 벌어졌다.

올해 작황 부진으로 '금고추'라 불리며 가격이 폭등했던 고춧가루는 재래시장에서는

600g당 1만8000원에서 3만 원 선에 구입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에서는 30% 이상 비싼 2만6800원에서 3만9800원을 내야 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배추와 무의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작황이 좋아 주 김장재료인 배추(포기당 1676원)와 무(개당 978원)는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크게 안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YWCA의 한 관계자는 "올해 배추 가격은 싸지만 고춧가루, 천일염 등 부재료 가격이 상승해 가게 부담은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평사, 등급 평가법 공시해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신용평가사는 기업의 신용 등급을 매길 때 사용한 평가방법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규제개혁 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신평사는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방법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되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평가사가 기업 신용등급 평가방법을 공시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문제가 될 때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된 자료를 근거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입법에 고된 개정안 중 시장질서 교란 등 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는 다음에 추진키로 했다.

또 단기간매매제한(ATR) 허용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 2015년부터 주총결결의 대리행사를 금지하고,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돼온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의 실권주 임의처리를 제한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세관 중고생 80명 초청 ‘현장체험’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정세화)은 22일 학다리고를 포함한 항공·영광 지역 중고생 80명에게 진로 탐색 프로그램 일환으로 미래 직업선택 도움을 주기 위해 세관 현장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학생들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여행자대류품 통관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불법 수입물품 및 안보위해물질 반입 차단을 위한 X-ray 검색 과정을 살펴 보았다. 또한 마약 탐지견의 탐지 시연에 직접 참여하는 등 마

약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들 학생들은 이어서 관세 행정 동영상 통해 세관의 역할과 기능 및 FTA를 포함한 수출입통관업무 등 관세행정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듣고 세관 홍보관을 관람했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미래 국가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위해 더 많은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카드사의 꿈수 “月 30만원 이상 써야 부가 혜택”

수수료를 인하 보전 위해 실적기준 올려

신용카드사들이 최근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인하시 수익 보전이 힘들어 지자 무료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의 카드 기준 실적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부가서비스 제공 기준 실적을 전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등은 사용자들이 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일시불과 할부 등 전월 신용결제 실적을 30만원 이상으로 올려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영화관에서 입장권을 살 때 1000~2000원의 할인을 받으려면 최소 전월에 30만원 이상의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매달 30만원

정도를 카드로 쓰지 않는 고객으로서 신용카드가 결제 수단 외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KB국민카드의 ‘굿데이카드’는 내년 4월부터 주유, 통신, 대중교통의 할인 서비스를 위한 전월 이용액 기준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롯데카드도 ‘백스(VEEX) 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을 30만원으로 잡고 있다.

롯데카드의 ‘DC슈퍼프리미엄 카드’와 ‘DC스마트 카드’는 전월 이용액이 30만원~50만원일 경우 5% 할인해줬으나 내년 1월부터는 6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삼성카드는 내년 5월부터 1회 승인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만 스마트오터서비스 캐시백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금액 제한이 없었다.

하나SK카드의 ‘빚빡’, ‘오토카드’는 국내와 해외 사용액이 전월 기준으로 20만원 이상인 경우 외식과 커피를 10% 할인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최근 3개월간 국내 사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전월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많이 만들어 매달 30만원을 채우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월 실적에는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은 가맹점 수수료가 없고 고객에게 이용 수수료를 받는 데 이용 후 곧바로 갚아버리면 고객 이용 수수료를 몰지 않으므로 실적 산정에서 뺀다는 것이다. 각종 공과금도 사용 실적에서 사라진다. /연합뉴스

산업은행, 고졸 50명 정규직 채용

산업은행은 고졸 출신 50명을 정규직 신입행원으로 채용하는 절차를 끝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번에 지방 소재 고교 출신을 50% 채용하고 지역활당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서울·경기 25명, 영남 13명, 충청·강원 6명, 호남·제주 6명 등으로 분포됐다.

출신학교별로는 덕수고(덕수상

고), 서울여상, 선린인터넷고(선린상고), 성동글로벌경영고(성동여상), 대구제일여상, 부산진여상, 대전연상 등이 각각 2~3명의 합격자를 배출, 전통 명문상고가 두각을 나타냈다.

산업은행은 내신 1, 2등급의 우수한 학생들이 풀렸다고 밝혔다.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학생도 많았고 취업관련 자격증을 12개나 취득한 학생도 있었다. /연합뉴스

대출 중개수수료 5%로 제한

대부업법 국무회의 통과...대출금리 하락 효과

대출자를 알선해주고 받는 중개수수료율이 대출금의 5%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대출 중개수수료를 상한제 등을 담은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출 중개수수료가 대출금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중개

수수료율을 내리면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기존의 대출 중개수수료율은 대형대부업체 8.2%, 저축은행 7.3%, 할부금융사 6.1%였다.

금융위 안형의 서민금융팀장은 “대부업체와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의 주요 원인이었던 중개수수료율을

정비해 서민의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등록되지 않은 대출 중개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출자에게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도 금지했다. 대출할 때 소득, 재산, 부채를 증명하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받는 기준금액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

대부 광고는 지나친 빛의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일정 크기로 넣고, 등록번호와 상호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뒤야 한다. 금융위는 법·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광주·전남 기업 첫 지정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여성가족부 주관 ‘2011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직원의 삶의 질 제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도입·운영하는 기업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

으며 전문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2011년도 신규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대기업 22개, 중소기업 33개, 공공기관 40개소 등 총 95개소로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소재 기업 최초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은행 송기진 은행장은 JOY&FUN 경영방향을 기본으로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운영, 예고 없는 회식 안하기 캠페인, 흡연·비만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장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등을 통해 일과가 좋은 기업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신청 접수

▶사업내용
태양전지를 설치하여 생산된 전력을 SMP가격과 인증서 판매가격을 합산한 가격으로 전력거래소 및 RPS기관에 판매하는 발전 시스템

인증서 판매가격: 입찰을 통하여 결정

▶신청대상: 건물옥상 및 공장지붕,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를 소유한자

▶수익성: 건설 투자비 회수는 약 8~9년, 수익은 건설비용의 약 2배 창출

▶건설기간: 신청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의 기간 소요(사업허가~준공까지)

태양광 주택 3kw기준 800만원으로 시공가능!!

내집 전기는 내가 직접 만들어 쓴다!

누진세 해방 및 전기료 80% 절감효과

설치효과 월 평균 92,490 원 절감

설치전 월 평균 470kwh 사용으로 요금 105,110원

설치후 월 평균 140kwh 사용으로 요금 12,370원

설치장소: 주택, 상가, 마을회관, 공장 등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친환경 기업 정우엔지니어링 www.jwsolar.co.kr

“웨딩,객실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의 대결인 행사”

새롭게 준비한 가을웨딩 총 100가지 뷔페

객실 50%할인 및 조식뷔페(30종) 무료제공

각종연회행사 할인!
(돌잔치,회갑연,송연모임,기업행사)

광주 최대의 5000평의 초대형수치장은 오직 호텔예술의전당 뿐입니다!

뷔페식비는 대형에식장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가을뷔페는 총100여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통창치와 즉석김치로 모십니다. 하객 400인 이상 보증시 원목집대 및 협탁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성수기 혼잡한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있는 연회를가질 수 있습니다.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362-0011, 600-9999